

# 환선굴 관광객의 계절적 특성

이 영 혜\*

## Seasonal Characteristics of the Tourists Visiting Hwanseongul (Cave)

Young-Hye, Lee

Abstract :The number of tourists was especially high in spring and summer (April, May and August in particular). Therefore, it's necessary to develop and offer year-round tourism opportunities.

Key Words : Hwanseongul, Seasonal characteristics

**국문요약** : 환선굴 관광객의 계절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자료분석결과 시기적으로 4월, 5월, 8월 즉, 봄과 여름에 관광객이 집중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연중 관광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주요어 : 환선굴, 관광객 수

### I. 서론

관광동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프로파일을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환선굴을 방문한 관광객의 계절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 II. 조사결과

대이리 동굴지대는 환선굴, 관음굴, 양터목세굴, 덕발세굴, 계암풍혈, 큰재세굴 등 6개의 동굴이 분포하며 천연기념물 제178호 지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1996년에 환선굴 내부 개발을 추진하여 석회동굴인 환선굴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게 되었다. 환선굴은 동굴 내부뿐만 아니라 덕향산, 촛대봉, 지극산, 물미산 등으로 둘러싸여 수

려한 산악 경관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굴피집, 너와집, 통방아 등 민속자료가 풍부하여 주변 일대를 대이리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개발하고 있다.

환선굴은 총연장 6.2km로 추정되는 동양 최대의 석회동굴로 해발 500m 지점의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며, 폭 14m, 높이 10m의 아치형 동구(洞口)를 통해 다량의 동굴수가 유출되고 있다. 환선굴 내부는 국내의 다른 석회동굴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鍾유석은 물론 여러 단계로 형성된 2차 생성물들이 집적되어 있어 동굴의 생성, 성장, 퇴화의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중앙광장의 옥좌대와 동굴 입구의 만리장성 그리고 도깨비 방망이는 버섯형鍾유폭포는 세계 어느 동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환선굴만의 자랑이다. 또한 환선굴 내에는 10여개의 크고 작은 동굴호수와 6개의 폭포가 분포하고 있어 통로를 따라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건다보면 마치 지하계곡을 탐방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특이하게도 환선굴은 바닥의 대부분이 중유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직경 40m의 거대한 중앙광장은 수만명의 인원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백사장이 펼쳐져 있다.

종의 동굴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들 중 박쥐, 도롱뇽, 노래기, 곱등이는 개방구간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분석자료는 삼척시 대이리동굴지대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림 1] 환선굴 입구 안내판



[그림 2] 환선굴 입구 및 주차장

환선굴의 주 통로는 직경 15m이상의 공간을 유지하고 있어 그 웅장함은 다른 동굴과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이며 천정에는 무수한 중유석군이 매달려 있고 용식구와 용식공이 대규모로 발달되어 있고 곳곳에 천정으로부터 떨어지는 낙수가 신비로움을 더해준다. 환선굴은 연중 11℃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으며, 천정과 벽면을 통해 스며드는 물방울의 양으로 사계절이 뚜렷하게 구분되며 천정과 벽면의 물방울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영롱한 빛을 발하여 금광을 방불케 한다. 환선굴 내에는 관박쥐, 노래기, 곱등이, 꼬리치레도롱뇽, 소백옆새우, 플라나리아 등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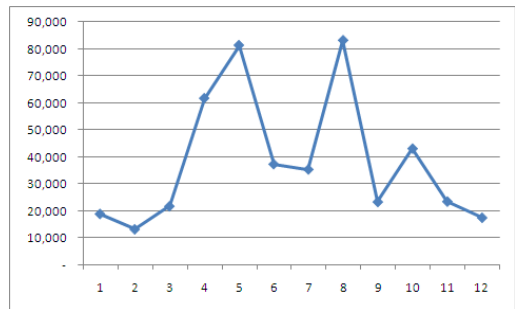


그림 3. 계절별 관광객 수

### Ⅲ. 결론

환선굴 관광객의 계절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자료분석결과 시기적으로 4월, 5월, 8월 즉, 봄과 여름에 관광객이 집중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연중 관광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승삼, 1996, “제주도의 동굴자원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45, 41-48.
- 강승삼, 1997, “카르스트지형과 석회동굴 소고,” 한국동굴학회지, 51, 27-30.
- 권동희, 1996, “화성암과 제주도의 용암동굴 소고,” 한국동굴학회지, 45, 49-63.
- 이영혜, 1998, “고수동굴지역의 지리환경,” 한국동굴학회지, 54, 21-28.
- 임철호, 1997, “중국 길림성 남부지역의 석회암 동굴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51, 35-38.
- 홍시환 외, 1996, “한국 동굴의 구조적 특성,” 한국동굴학회지, 46, 33-47.
- 홍충렬, 1998, “미국의 동굴Ⅱ,” 한국동굴학회지, 53, 51-56.